

전주시청사 별관 확충 본격화

별관 건물로 사용할 현대해상 건물 등기 이전 완료·시민 친화 행정서비스 강화

전주시가 시청사 별관 확충을 위해 옛 현대해상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본격화한다.

시는 지난 8월 29일 현대해상 소유의 건물이 전주시 소유로 등기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시청사 별관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소유권 이전은 지난해 12월 관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 데 이어, 마지막 잔금이 납부되면서 최종 마무리됐다.

이로써 연면적 1만4616㎡(지하 5층~지상 15층)의 현대해상 빌딩은 전주시의 공식 청사 별관으로 편입됐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서 현대해상 본사와 직원들은 모두 이전을 마쳤고, 시는 최근 리모델링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곧바로 리모델링 공사와 단계적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행정 공백이나 업무 지연 없이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 공사를 통해 △민원인 전용 공간 확대 △주차 편의 개선 △회의실 확충 △패적인 민원 환경 조성 등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1월 1차 이전과 3월 2차 이전 등 단계별 입주 계획에 따라 대우빌딩 등 분산된 사무공간을 통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본청과 별관 간의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 민원



전주시가 시청사 별관 확충을 위해 옛 현대해상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본격화한다. (전주시청 전경 사진)

서비스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시는 당초 신축 청사 건립 시 1000여 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에서, 건물 매입을 통한 사무실 공간 리모델링 방식으로 사업을 결정해 매입비 235억 원과 리모델링비 55억 원 포함한 총사업비 290억 원 규모로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동일 규모의 청사를 신축할 경우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행정 수요를 충족한 모범적인 지방행정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시는 중앙부처심사 통과 이후 감정평가와 물리적 실사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했으며, 총 6차례의 협상을 거쳐 최종 매입 조건을 확정했다.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에 이어 지난해

전금 지금까지 순조롭게 마무리함으로써 장기간 표류 우려가 있던 청사 확충 사업을 조기에 안정화했다.

시는 이번 별관 확충사업을 통해 기존 시청사 일대가 전주시 행정의 새로운 축이자 구도심 발전의 거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전주와 완주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청사 별관 확충은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차원을 넘어, 시민 여러분께 더 나은 행정 서비스와 편리한 민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투지였다”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면서도 신속하게 추진해 온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드론축구 중주도시 전주에서 펼쳐진 첫 번째 드론축구월드컵이 각국 국가대표팀의 수준 높은 경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세계인 함께 즐긴 ‘전주드론축구월드컵’

33개국 선수단 모인 글로벌 드론 스포츠 대회… 총 2만여명 방문

드론축구 중주도시 전주에서 펼쳐진 첫 번째 드론축구월드컵이 각국 국가대표팀의 수준 높은 경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주시는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펼쳐진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FIFA World Cup Jeonju 2025)’이 전세계인이 함께 즐긴 축제로 기억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23개국 드론축구 국가대표를 포함한 전 세계 33개국 선수단이 드론축구 중주도시 전주에 모여 열띤 경기를 펼치, 전주에서 시작된

드론축구가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신개념 스포츠로 자리매김했음을 입증했다.

실제로 이번 대회의 개막식에는 약 1만5000명, 시상식에는 약 5000명이 참여하는 등 공식행사에만 2만여 명이 찾았다.

먼저 대회 기간 각국 선수단들이 고난도 전략과 팀워크를 선보인 드론축구 국가대표전과 클럽대항전이 열려 드론축구의 매력을 관람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했다.

또한 이번 월드컵에서 첫선을 보인 크래싱(Cracing)과 슈퍼파일럿 선발대회(Super Pilot Competition)는 관람객들

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으며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이번 월드컵에서는 ‘글로벌 드론 종합축제’라는 대회 취지에 걸맞게 드론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드론산업과 지역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연계행사들이 함께 진행돼 관람객과 참가선수단 모두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경험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전주더메이호텔에서 개최된 ‘드론산업 국제 심포지엄’은 드론 전문가 등 참석자들이 글로벌 드론 산업의 최신 동향과 전략을 공유하고, 국산화 정책 및 상용화 사례를 통한 산업의 전략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등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보건소, “감염병 주의하세요”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과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추석 명절은 연휴 기간이 길어 대규모 인구 이동과 여러 사람 간 음식의 공동 섭취 기회가 증가하는 관계로 식중독 집단발생 및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건소는 감염병 발생 대비 비대응반을 운영하고, 추석 연휴 동안 24시간 비상연락망 유지 및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집단실사 등 감염병 발생에 즉각 대응기로 했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물을 충분히 익혀 먹기 △풍인 물 마시기 △채소·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고

감염은 벗겨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하지 않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생선, 고기, 채소 도마 분리 사용) 등 6대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최근 11주째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환절기 호흡기 감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감염취약시설 등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이프면 병원에서 진료받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생활화할 것을 당부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 맛집 글로벌 지도 서비스 등록 지원

전주시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맛의 도시 전주에서 미식여행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전주한옥마을과 전통시장 일대 대표 맛집들의 글로벌 지도 서비스 등록을 지원기로 했다.

시는 전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역 음식점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음식점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전주 맛집 글로벌 지도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의 특색 있는 맛집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으로, 시는 오는 10월 14일까지 등록업체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구글 지도상 음

식점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정보 등록 지원 △외국어 메뉴판 제작 및 보급 △구글 비즈니스 계정 활용 교육 제공 등이다.

특히 이번 ‘전주 맛집 글로벌 지도 서비스 지원사업’은 전주의 음식점을 구글 지도에 등록하고, 외국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쉽게 지역 맛집을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시는 외국어 메뉴판과 QR코드를 제작·지원해 전주 음식점들이 글로벌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보다 많은 음식점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9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신청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많은 음식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진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